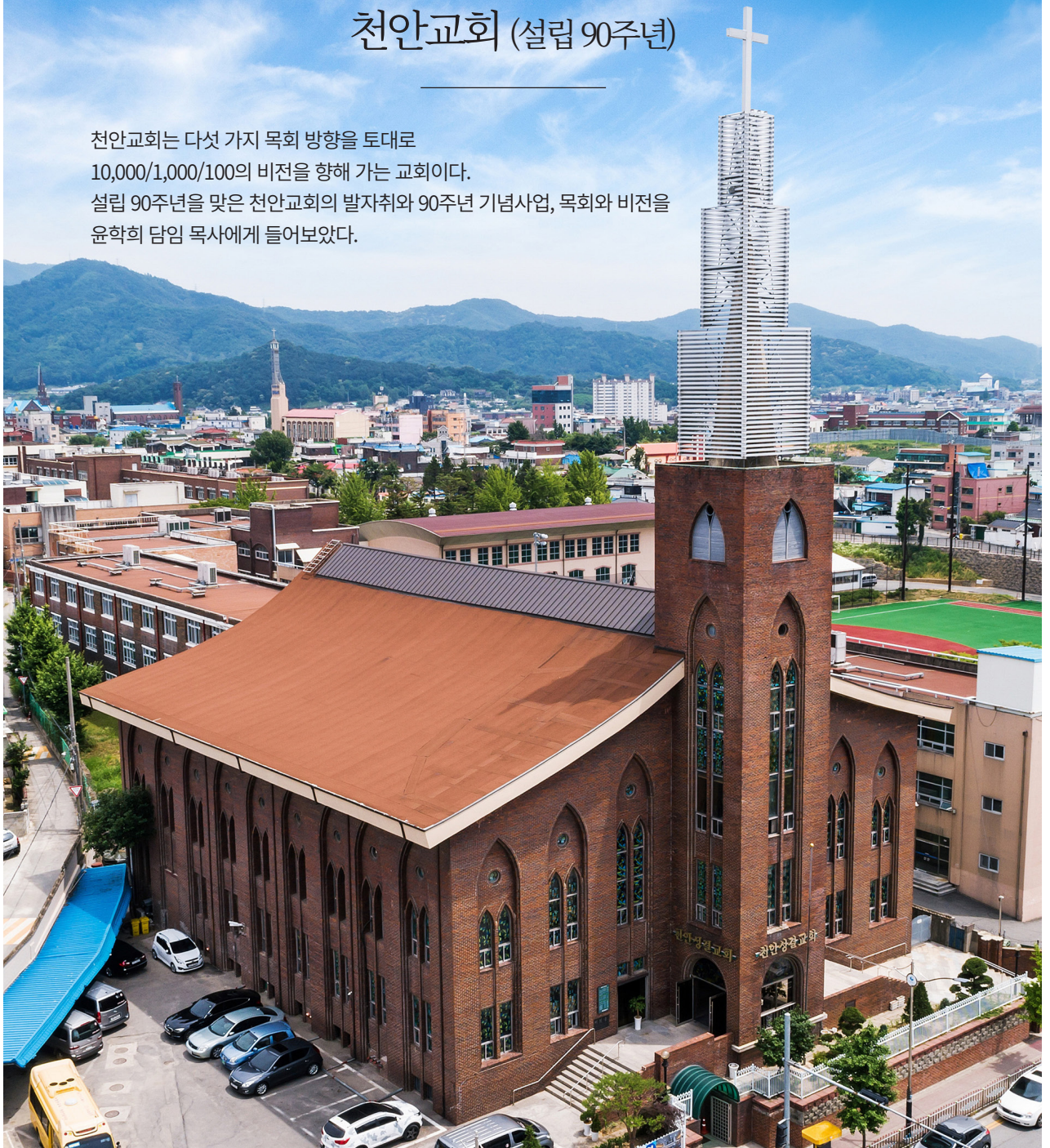


90년의 사역으로 100년의 비전을 향하는 교회

천안교회 (설립 90주년)

천안교회는 다섯 가지 목회 방향을 토대로
10,000/1,000/100의 비전을 향해 가는 교회이다.
설립 90주년을 맞은 천안교회의 발자취와 90주년 기념사업, 목회와 비전을
윤학희 담임 목사에게 들어보았다.





천안의 중심에서 전하는 성결 복음

“천안(天安)은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충청도를 대표하는 내륙도시로서, 1번 국도, 고속도로,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자 국토의 중핵 도시입니다. 여러 기업이 위치한 산업 도시이자, 12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70만 명인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이 많아 손꼽히는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유관순 열사의 고향과 독립기념관이 있으며, 특산물은 호두과자와 병천 순대입니다. 천안교회는 천안역과 천안터미널에 가까운 지역에 있으며, 천안의 중심에서 천안아산 지역 복음화와 온 세계에 성결 복음 확장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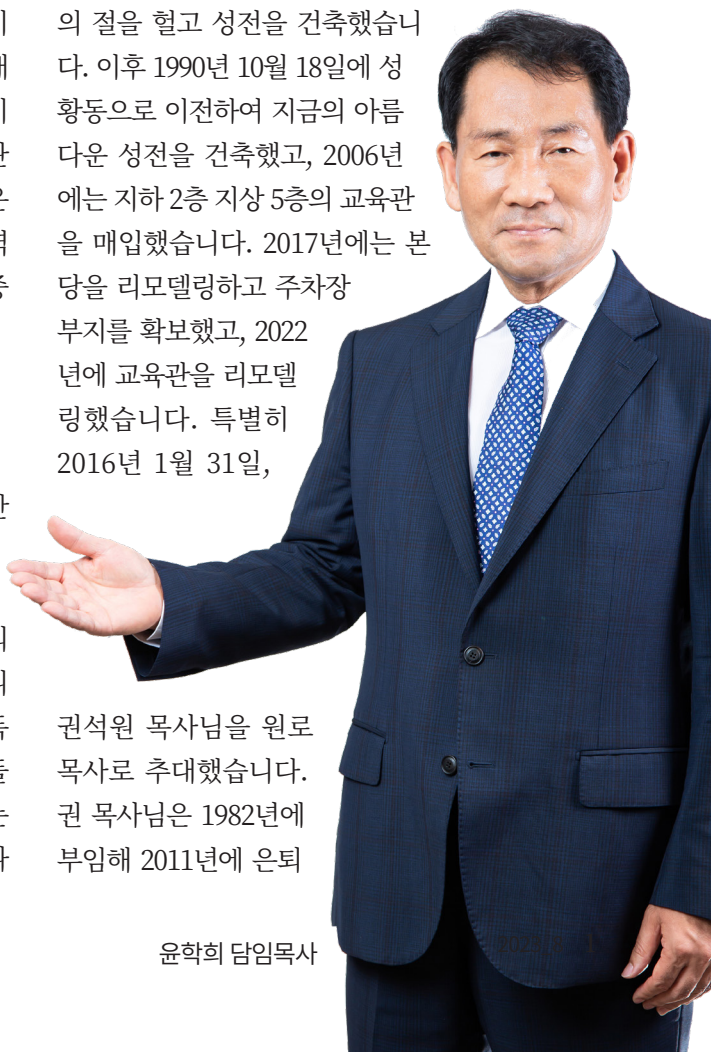
천안 지역 최초의 성결교회

“천안교회는 1933년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천안 지역 최초의 성결교회입니다. 매곡교회, 수신교회, 남관교회, 동천안교회, 천안제일교회, 서천안교회, 등대교회, 하늘평안교회 등 이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천안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일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교단과 함께 강제 해산당했으나 성도들이 구세군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갔고, 해방 후에는 문화동 155번지 일본인 절터에 교회를 재건했으나

6·25 전쟁 중에 예배당이 공산군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1965년에 일본의 절을 헐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후 1990년 10월 18일에 성황동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고, 2006년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교육관을 매입했습니다. 2017년에는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2022년에 교육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특별히 2016년 1월 31일,

권석원 목사님을 원로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권 목사님은 1982년에 부임해 2011년에 은퇴



할 때까지 성황동 예배당 건축 등 큰 공을 세우셨고 교회의 부흥을 일구었으며,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천안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천안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교회 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당,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의 교육관과 기도원인 성결동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2020년에 예배 출석 인원과 예산이 급속도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출석 인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산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198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196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안정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 2,143명, 구도자와 교회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3,233명의 성도(2022년 연말 사무총회 기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부목사 6명, 교육목사 2명, 전담 전도사 1명, 교육 전도사 5명과 2명의 교육 간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현재 해외 28개국 4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6개 기관을 섬기며, 국내 43개의 작은 교회와 28개 기관에 선교비를 후원합니다. 또한, 매년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학생과 교회 학생에게 약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근 중 고등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등에 매년 3,0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반찬 나눔 사역을, 매주 화요일에는 경로대학을 통해 지역을 섬깁니다. 또한 제가 부임한 2012년 이후에 매년 성탄 헌금 전액(누계 2억 8,900만 원)을 천안, 아산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90주년 기념사업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5월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들을 발제자로 하여 천안교회 역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월 12~13일에는 호남 섬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단 목회자를 초청해서 제31회 작은 교회 교역



자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천안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시작으로 31년 동안 진행해 온 행사인데, 1박 2일 동안 편하게 쉬며 세미나를 통해 재충전하도록 돕고, 양복 한 벌씩 해드립니다.”

“8월 1일~3일에 충남 태안의 리조트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8월 6일 설립 기념 주일에는 임직식을 통해 89명의 새 일꾼을 세울 것입니다. 9월 3일에는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설립 90주년 기념 음악회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연주할 계획인데,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와 도솔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지역 주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월 4~7일에는 ‘설립 90주년 기념 4인 4색 부흥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을 위해 도약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국내 작은 교회 한 곳을 전면 리모델링해 주고, 해외에 9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다섯 가지 목회 방향

“1985년,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천안교회입니다. 3년 사역 후 군

중 목사로 입대했고, 전역 후 천안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교회 후원(일 년에 2만 불)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후 다시 부목사로 5년을 사역했습니다. 2004년 1월,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8년을 목회했고, 2012년 5월에 천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천안교회는 저에게 모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한 성도들과 다시 만나 같은 꿈을 꾸며 동역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임 후 가장 먼저 교회의 운영 규약과 CI를 만들고,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과 비전, 목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성도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안교회는 매년 표어를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 선언문과 비전, 목회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목회 방향에 따라 목회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





배를 드리고자 예배를 정비하고 예배에 성도를 참여시키고 부교역자를 좋은 설교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믿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확신반, 성장반, 성경 맥 잡기, 성경 각 권 연구, 기초 교리반, 큐티훈련학교와 제자훈련학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사역자반 등 각종 훈련 프로그램으로 양육합니다.”

“셋째, 청소년을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영아새싹교회, 유아아기새교회, 유년꿈땅교회, 초등예닮교회, 중등예향교회, 고등예청교회, 예수나무청년교회로 구성된 교회학교는 물론 어와나클럽, 성결영어성경학교, 큐티아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매년 성탄 감사헌금은 천안 아산의 희소 난치병 학생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 있으며, 반찬 나눔 사역(50가정)과 사랑의 김장 나눔(150가정) 등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섯째,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 선교사 파송에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0000/1000/100

“천안교회의 비전은 10000/1000/100입니다. 10,0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의 훈련받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교회를 지원하고 100가정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 폭발훈련으로 성도들을 전도자로 무장하고, 전반기에는 새생명 축제, 후반기에는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신도 양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선교사 파송과 작은 교회 돕기, 지역사

회 섬기기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일에는 인근 중고등학교의 주차장을 사용하지만,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주중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주차 대란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주변 주택을 구매해서 추가로 여러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조성된 교회 기도원인 성결동산을 재건축하여 성도들의 영성 훈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말농장을 만들어 힐링의 장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든 당회원, 교회학교 교사, 셀 리더, 사역 팀원이 기초 양육은 물론이고, 제자훈련과 사역자 반까지 다 이수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천안교회도 더욱더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100년을 내다보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믿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교회의 목회뿐만 아니라 교단 일이나 연합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저의 모든 사역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천안교회는 100주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100년을 내다보며 천안교회를 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오고 싶어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반찬나눔



90주년 선교사 파송식



경로잔치



예수나무청년교회